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2월 28일(월)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22년 2월 25일(금) (총 8쪽)	담당부서 시장조사국 유통조사팀 담당자 정대균 팀장 (043-880-5561) 김인숙 팀장 (043-880-5421)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 EU산 조제분유, 관세 인하에도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 -

저출산으로 인해 조제분유의 국내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조제분유의 가격 및 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1.8배에서 4.1배 차이가 났다.

* 조제분유의 '20년 국내 생산량은 '19년 대비 24.5% 감소했으나, 수입량은 동 기간 4.6% 증가(농림부)

□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가격 대비 평균 2.33배 차이

최근 2년 6개월간('19년~'21년 6월) 수입 조제분유의 최고·최저 수입가격, 4분위별 평균 수입가격**, 평균 국내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국내 판매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kg당 평균 48,078원으로 평균 수입가격(20,625원)의 2.33배였다. 최고 가격대에서는 1.82배 높았으나 최저 가격대에서는 무려 4.11배 높은 수준이었다.

* 전체 수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4등분해 각 분위별 평균가격을 계산

** 수입 시 제세가 반영된 공식수입원 등의 수입가격(관세청 제공)

*** 한국소비자원이 모니터링 한 수입소비재 가격 및 국내 유통업체가 제공한 판매가격

[조제분유의 수입가격 및 판매가격 차이]



제품 가격대별(분위별)로는 저가 제품(1분위)의 수입가격이 '20년 대비 큰 폭으로(17.5%) 상승하면서 전체 수입가격이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저가 제품(1분위, 1.9%)보다 고가 제품(4분위) 가격 상승(6.0%) 폭이 컸다. [p4 표 참조]

□ EU산 조제분유, 관세 인하에도 국내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각각

수입 조제분유*는 기준관세율이 일반 품목(8%)에 비해 높아(36%)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 효과가 크게 나타나, 통관가격 변화율**과 관세 절감액***도 FTA 이행이 오래될수록 확대·증가해왔다.

* 한-EU FTA('11.7.1.) 이행 10년간 통관가격 인하율은 평균 3.6%이며 '21.7.1.자로 관세 완전 철폐

** EU산 통관가격 변화율 : (8년 차, '18/'19년) -4.1% → (10년 차, '20/'21년) -8.7%

*** EU산 관세 절감액 : ('19년) 49억 원 → ('21년 6월) 48억 9천5백만 원

그러나 최근 3년간 EU산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격은 원산지별로 가격 인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산은 '21년 상반기 가격이 '20년 대비 5.0%~10.8% 인하된 반면 네덜란드산은 6.8% 상승했다.

[조제분유 원산지별 평균 판매가격 변화]

(단위: 원/kg)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변화율(%)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국내산(한국)	35,495	36,074	36,169	1.9	0.3	
EU	네덜란드	41,208 (1.16)	43,175 (1.20)	46,125 (1.28)	11.9	6.8
	프랑스	36,225 (1.02)	41,062 (1.14)	38,774 (1.07)	7.0	-5.6
	독일	47,250 (1.33)	47,250 (1.31)	42,160 (1.17)	-10.8	-10.8
	오스트리아	46,125 (1.30)	46,125 (1.28)	43,819 (1.21)	-5.0	-5.0
	아일랜드	69,778 (1.97)	69,778 (1.93)	69,778 (1.93)	0.0	0.0

()안은 해당연도의 국내산 조제분유 평균가격 대비 원산지별 조제분유 평균가격의 배수를 나타냄

□ 소비자의 48.4%는 수입 조제분유 구입

조제분유에 대한 소비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최근 구매한 조제분유는 51.6%가 국내산 제품으로 나타났고, 수입 조제분유는 독일산(21.4%), 뉴질랜드산(13.0%), 네덜란드산(4.6%) 순이었다.

* 최근 6개월 이내 국내 혹은 수입 조제분유 구매 경험자(전국 25~45세의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50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21.10.18. ~ 10.31.)

구매 채널별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74.6%로 가장 많았고, 대형할인마트 12.8%, 해외직구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선택 이유는 아이가 잘 먹어서(44.4%)가 가장 많았고, 영양성분(20.6%), 안전한 제품(9.6%), 모유와 가장 유사해서(6.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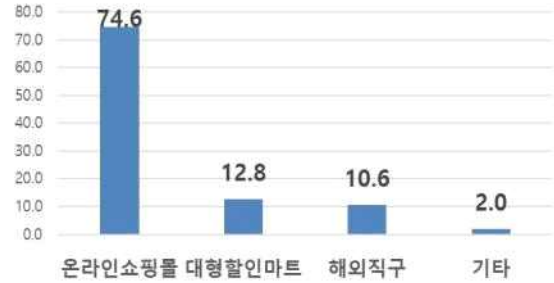
[구매한 조제분유의 원산지]

(단위 : %)



[조제분유 구매 경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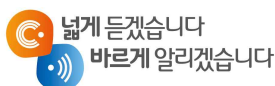


초산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40대 초반의 산모들은 타 연령대에 비해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고, 유기농 분유와 산양 분유의 구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평균 출산연령 33.1세(통계청)

한편, 소비자들은 조제분유에 대한 불만으로는 교환·환불의 어려움(32.2%), 안전과 위생 문제(31.4%),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사용·섭취(30.2%), 품질 하자(22.0%)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생활 밀접 품목의 판매가격 및 유통구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 구매 선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1 수입 조제분유 수입 및 판매가격 분석

- 최저 가격대에서는 조제분유의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의 4.11배에 달했으나, 최고 가격대에서는 1.82배 수준에 불과
- 최근 3년간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수입가격은 1~2분위의 저가 제품이 큰 폭으로 상승(최대 28.2%)하면서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판매가격에서는 저가 제품(1분위) 상승폭(1.9~2.8%)에 비해 고가 제품(4분위)의 가격 상승폭(3.9~6.0%)이 더 크게 나타남.

[분위별 조제분유의 수입가격 및 판매가격 변화]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가격 변화율(%)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최저	수입가격	6,781	6,418	8,203	21.0	27.8
	판매가격 (수입가대비)	33,750 (4.98)**	33,750 (5.26)	33,750 [4.11]	0.0	0.0
1분위	수입가격	11,711	12,782	15,013	28.2	17.5
	판매가격 (수입가대비)	34,179 (2.92)	34,458 (2.7)	35,125 (2.34)	2.8	1.9
2분위	수입가격	17,532	18,026	19,166	9.3	6.3
	판매가격 (수입가대비)	38,421 (2.19)	42,244 (2.34)	44,219 (2.31)	15.1	4.7
3분위	수입가격	20,327	20,494	21,437	5.5	4.6
	판매가격 (수입가대비)	49,054 (2.41)	49,000 (2.39)	51,094 (2.38)	4.2	4.3
4분위	수입가격	24,511	25,038	24,955	1.8	-0.3
	판매가격 (수입가대비)	63,608 (2.6)	62,351 (2.49)	66,076 (2.65)	3.9	6.0
최고	수입가격	28,450	45,599	38,335	34.7	-15.9
	판매가격 (수입가대비)	69,778 (2.45)	69,778 (1.53)	69,778 [1.82]	0.0	0.0
전체	수입가격	19,474	19,519	20,625	5.9	5.7
	판매가격 (수입가대비)	46,315 (2.38)	46,575 (2.39)	48,078 [2.33]	3.8	3.2

* '21년의 수입가격은 8월까지를 국내 판매가격은 6월까지의 데이터(data)를 기준으로 분석

** () 안의 값은 수입가격 대비 판매가격의 배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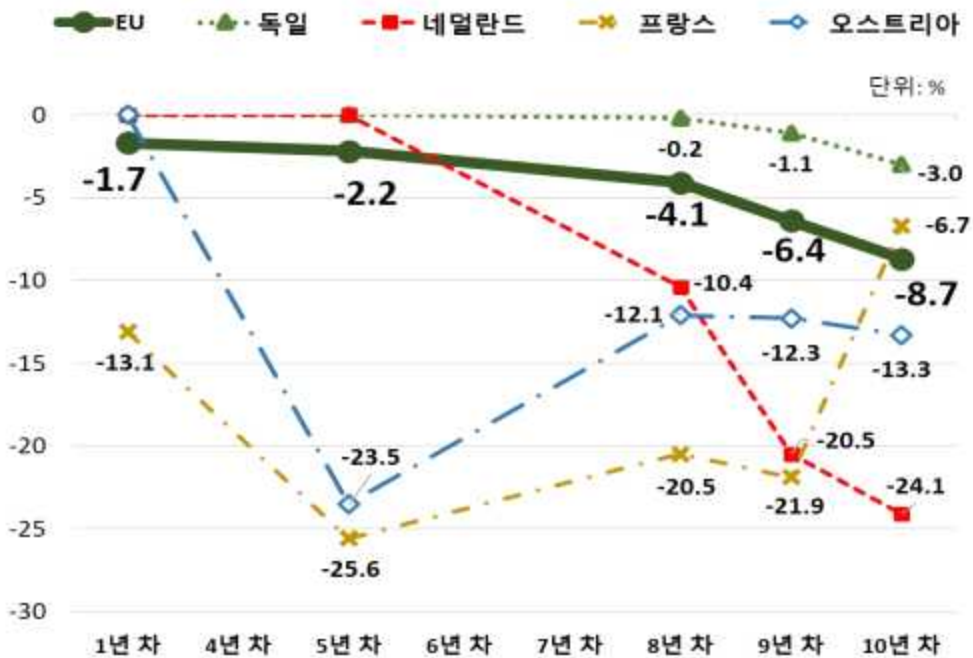
2 수입 조제분유 관세인하 효과 및 원산지별 판매가격 분석

□ EU산과 뉴질랜드산 조제분유의 통관가격 변화율*은 FTA 이행 연차가 오래될수록 확대되는 추세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평균 통관가격과 기준관세율을 적용한 평균 통관가격 차이를 말함

- EU산은 5년 차에 -2.2%로 감소, 8년 차에 -4.1%, 10년 차('20'21년)에는 -8.7%로 점차 확대 추세
- 독일산은 8년 차에 -0.2%로 소폭 감소, 9년 차에 -1.1%, 10년 차에는 -3.0%로 최근 들어 확대되는 추세
- 독일산은 8년 차 이후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변화율을 보이며, 10년 차에는 -24.1%로 가장 큰 변화율을 보임.

[국가별 조제분유 통관가격 변화율]



-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하나은행 외환포털 등의 국가별 수입단가(수입량·수입가격) 및 평균 환율을 기초로 평균 통관가격을 산정
- ▶ 통관가격 변화율 :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FTA 적용 평균 통관가격(A)'과 기준관세율을 적용한 'FTA 미적용 평균 통관가격(B)'의 차이를 나타냄 = $(A-B)/B \times 100$

- FTA 이행에 따른 조제분유 관세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2020년 기준 주요 국가별 조제분유 관세 절감액은 총 135억 8천4백만 원으로 추정
 - EU산 관세 절감액은 2020년 기준 76억 3천9백만 원이며 전체 절감액의 5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국가별 조제분유 관세 절감액(수입액 차액) 추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FTA 발효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비율)	'21.1~6
EU (‘11. 7. 1. FTA 발효)	FTA 적용	8,398	75,534	79,558	88,542	85,679	53,657
	FTA 미적용	8,398	76,986	81,610	93,442	93,319	58,552
	차액	0	-1,452	-2,051	-4,900	-7,639 (56.2)	-4,895
뉴질랜드 (‘15.12.20.)	FTA 적용	27,380	20,893	22,154	26,610	29,195	16,110
	FTA 미적용	28,046	23,485	25,126	30,795	34,218	19,393
	차액	-666	-2,592	-2,972	-4,185	-5,023 (37.0)	-3,283
호주 (‘14.12.12)	FTA 적용	6,505	4,692	4,825	3,161	3,171	1,154
	FTA 미적용	6,748	6,120	6,375	4,123	4,093	1,338
	차액	-243	-1,428	-1,550	-962	-922 (6.8)	-184
차액 소계			-5,472	-6,573	-10,047	-13,584 (100.0)	-8,362

- ▶ 주 1) FTA 적용 수입액은 $[\{\sum(\text{수입액} \times (1 + \text{협정관세율})) \times \text{환율}\}]$ 로 산출함.
- 2) FTA 미적용 수입액은 $[\{\sum(\text{수입액} \times (1 + \text{기준관세율})) \times \text{환율}\}]$ 로 산출함.
- 3) EU산 수입액 관련 연도는 각 연도의 7.1부터 다음 해 6.30까지가 아닌, 회계연도 기준이며, FTA 발효 연도(2011년) 수입액은 협정관세율 정보 부재로 수입량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가정함.
-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하나은행 외환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조제분유 국가별 통관가격 변화율과 관세 절감액은 FTA 이행이 오래될수록 점차 확대·증가 추세이지만 원산지별 평균 판매가격 변화율은 관세 인하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조제분유 원산지별 평균 판매가격]

(단위: 원/kg)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변화율(%)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국내산(한국)	35,495	36,074	36,169	1.9	0.3	
EU	네덜란드	41,208 (1.16)	43,175 (1.2)	46,125 (1.28)	11.9 -	6.8 -
	프랑스	36,225 (1.02)	41,062 (1.14)	38,774 (1.07)	7.0 -	-5.6 -
	독일	47,250 (1.33)	47,250 (1.31)	42,160 (1.17)	-10.8 -	-10.8 -
	오스트리아	46,125 (1.3)	46,125 (1.28)	43,819 (1.21)	-5.0 -	-5.0 -
	아일랜드	69,778 (1.97)	69,778 (1.93)	69,778 (1.93)	0.0 -	0.0 -
	호주	42,250 (1.19)	42,250 (1.17)	37,696 (1.04)	-10.8 -	-10.8 -
뉴질랜드	53,413 (1.5)	52,681 (1.46)	51,871 (1.43)	-2.9 -	-1.5 -	

() 안의 값은 연도별 한국산 조제분유 평균가격 대비 원산지별 조제분유 평균가격의 배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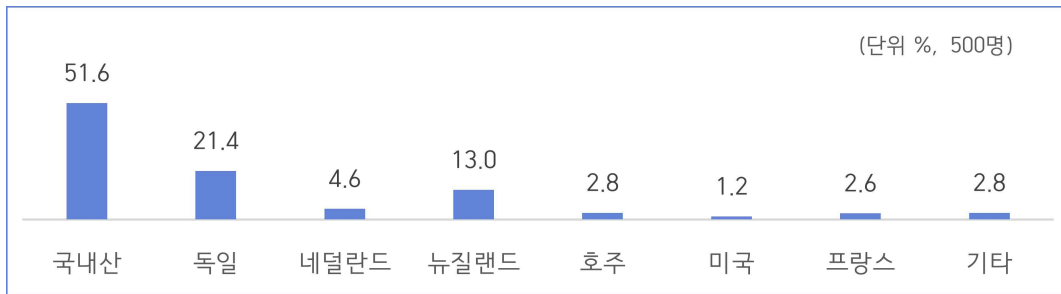
3 조제분유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내 혹은 수입 조제분유 구매 경험자 500명
(전국 25~45세의 만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1. 10. 18. ~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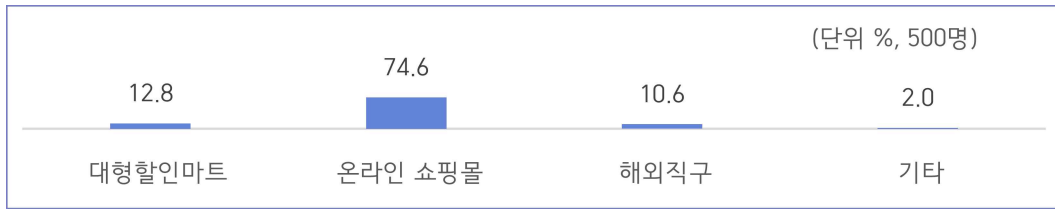
- (구매 조제분유 원산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조제분유의 원산지에 대해, 51.6%가 국내산을 구매했으며, 수입 조제분유로는 독일산이 21.4%로 가장 많이 구매했고, 다음으로 뉴질랜드산이 13.0%, 네덜란드가 4.6% 순으로 나타남.

[구매 조제분유의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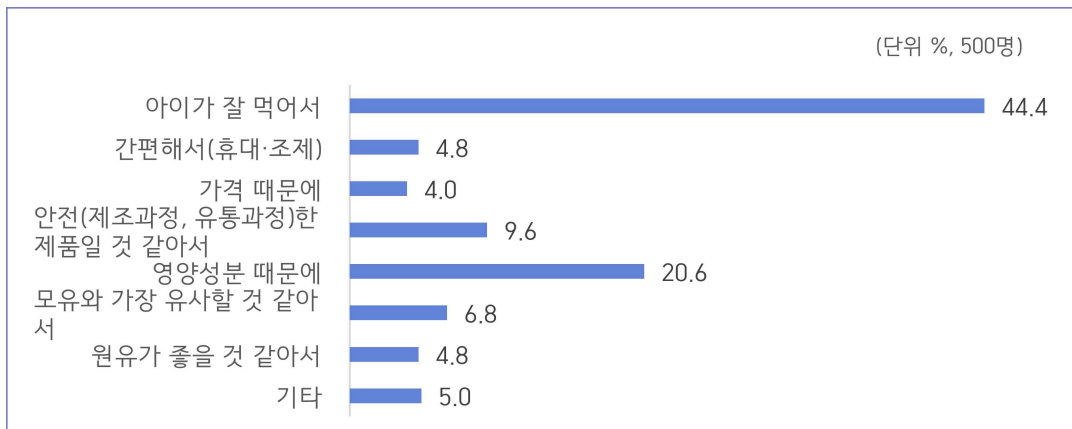
- (구매 장소) 온라인 쇼핑몰이 74.6%로 가장 많았고, 대형할인마트(12.8%), 해외직구도 10.6%에 이름.

[조제분유 구매 장소]



- (선택 이유) 가장 최근 구매한 조제분유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이가 잘 먹어서(44.4%)로 가장 많았고, 영양성분(20.6%), 안전한 제품(9.6%), 모유와 가장 유사해서(6.8%) 순으로, 가격 때문에 선택했다는 4.0%에 불과

[조제분유 선택 이유]



- (프리미엄 분유) 전체 응답자의 65.0%가 프리미엄 분유 경험이 있음.
- (연령대별 소비자 인식 차이) 30대 후반의 초산 부모들은 국내산을 구매한 비중이 높았고, 40대 초반은 프리미엄 제품을 타 연령대에 비해 선호하였으며, 유기농 뿐 아니라 산양 분유의 구매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연령대별 프리미엄 분유 구매 경험]

프리미엄 분유	25~29세	30~34세	35~39세	40~45세
구매 경험 있고, 향후도 구매 예정	37.0%	37.9%	34.0%	50.0%
구매 경험 있으나, 향후엔 비 구매 예정	23.0%	30.8%	28.4%	20.0%
구매 경험 없으나, 향후도 비 구매 예정	15.0%	15.7%	23.5%	17.5%
구매 경험 없으나, 향후엔 구매 예정	25.0%	15.7%	14.2%	12.5%
합 계	100%	100%	100%	100%

[연령대별 구매한 조제분유 종류]

	일반 분유	유기농 분유	산양 분유	특수 분유	합계
25~29세	47.0%	23.0%	6.0%	11.0%	100%
30~34세	49.5%	19.7%	4.0%	15.2%	100%
35~39세	55.6%	21.6%	3.1%	13.6%	100%
40~45세	57.5%	25.0%	10.0%	5.0%	100%